장하진 여성부 장관
김선욱 법제처장 취임 축사

국어로 2~3번은 함께 해결하고
출발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좋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장하진 여성부장관님 김선욱 법제처장님 두분의 장관취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당시 4개 부처에 여성장관이 동시 취임할 뿐만 아니라 남성독점의 자리였던 법무부 장관직에 여성을 임명한것을 여성계는 크게 환영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여정부가 약속과는 달리 여러가지 이유로 하나 둘 모두 퇴임하면서 여성부만이 여성이 지키게 된것은 여성의 국무회의 참여비율이 저하되는것 뿐 아니라 여성들의 고위관료로서의 능력 검증 및 기회가 박탈된다는데서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너무 작은 개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의 여성장관 다섯명 / 그간에도 최각 여성 장관들이 행정각과 물러나 되어갔

1월4일 단행된 참여정부의 부분개각에서 확연히 들어난 참여정부와 역대정부와의 다른점은 법제 및 사법행정 업무에 여성들의 진출의 문호를 크게 열었다는 점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첫 여성 법무부장관이 배출되었는가 하면 첫 여성 헌법재판관, 첫 여성 대법관, 그리고 첫 여성 법제처장이 탄생된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법사업무에 성인지성이 확보될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취임하신 두장관님에게 우리는 특별히 기대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장관님의 의욕적인 취임인사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장하진 장관의 경우 (하나의 예를 들면) 여성노동 등 소외계층 문제에 앞장선 진보적 사회학자로서 최근 우리정부의 사회적 통합 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공동체 형성에서 여성의 고용확대 노력에 주력하겠다고 한것에 기대를 거는 것입니다. 소득 2만달러 경제를 위해서는 400만 추가 고용이 필요하며 남성만으로는 메울수 없는 현실에서 일하지 않는 여성의 4분의 1인 250만명 이상이 경제활동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을 감안할때 여성부는 앞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확대,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확대 및 방과후 교육시설 모아 과 보육 시설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문제등을 중점하고 국회를 방문한 용기로 전력 의원의 협의로 실현해 나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김선욱 법제처장의 경우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 담당관, 즉 법제정의 수문장으로서 역할을 하는것이 법제처장의 임무이다. 김처장은 법 여성학을 전공한 학자로서 정부의 법체제에 성별 특성을 이해하는 '성인지 정책' 관점을 투영할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인물이라는데서 기대를 갖입니다. 눈길가는곳마다 성인지적 관점 투영하겠다고 하며 법과 여성을 접목시켜서 여성문제 해결에 앞장 서겠다고 한점이 믿음직 스럽습니다.
두장관님들의 의욕적인 포부를 실현해 나가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을수 있읍니다. 그때마다 뒤쪽에는 든든한 여성들의 후원이 있다는것을 잊지 마시고 후원을 요청 하세요. 여성단체들이 힘이 돼 줄것입니다.

노동부 / 건설교통부 / 국방부 / 재경부

우리나라의 장·차관급 인사가 전체의 30%에 이르기에는 아직 먼거리에 있읍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성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회의석 비율을 5.7%에서 13%로 높일수 있었고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 국무위원 비율을 여성들이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장관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여성계와의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장관님의 건투를 기원하며 일로 중요하지만 개인의 행복도 중요하다는데에서 즐기시면서 일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두장관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